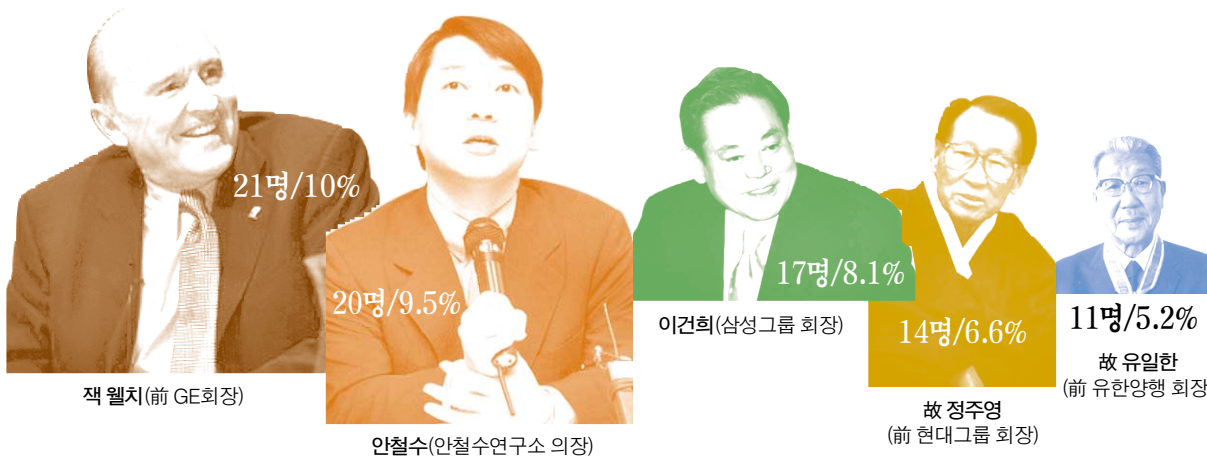


‘헤안과 배려’ 최고 경영자의 기본

지혜경영연구소 ‘지혜경영자 선정 및 자녀야 할 덕목’ 설문조사



지속가능경영에서 ESG경영으로 패러다임 변화

스티븐 코비의 말을 빌리자면 21세기는 지혜의 시대이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에서 육바라밀의 여섯 번째 덕목인 지혜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고 단언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분야는 이미 '지혜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성품과 철학을 우선시 하는 중앙직 사고, 그 중에서도 불교철학이 21세기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는 경영커뮤니티연합 회원 211명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지혜경영자 선정 및 지혜경영자가 자녀야 할 덕목'에 대한 설문

지혜경영자-잭 웰치 前 GE 회장, 안철수 의장 順 “일부 기업, 불교사상 등에서 새 경영원리 찾아”

결과를 6월 11일 발표했다. 경영커뮤니티연합은 삼성경제연구소 포럼, 커리어포럼, M&A포럼 등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경영관련 11개 커뮤니티이다.

설문 결과, 국내·외 최고 지혜경영자로는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과 잭 웰치 前 GE(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꼽혔다. 이 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미 고인이 된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 유일환 前 유한양행 회장, 서두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이 뒤를 이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도 '베스트 10' 명단에 올랐다.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잭 웰치 前 GE 회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과 기술보다 인간을 중시한 경영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안철수 의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비전 창출, 미련 없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양 등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인재를 중시한 경영과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前 정주영 회장은 도전정신과 열정, 위기와 시련의 극복, 前 유일환 회장은 사회환원과 나눔 실천, 노사관계 정립 등의 업적이 주된 이유였다.

무엇보다 경영커뮤니티연합 회원들은 '베스트 10' 지혜경영인이 공통적으로 미래에 예측이 뛰어난 혜안과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배려, 겸양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주관식으로 묻은 지혜경영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혜안)이 11.6%(24명)로 2위에 랭크됐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배려) 4위(6.3%), 겸양(겸손) 5위(5.8%), 수신(자기계발) 6위(3.9%) 등 상위 10개 덕목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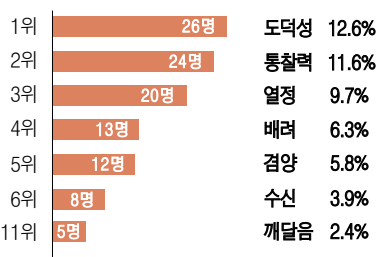
12.6%를 차지한 도덕성은 지혜경영자

■ 지혜경영이란?

지혜경영연구소는 '지혜경영'을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으로 정의한다. 지혜경영은 초심경영, 변화경영, 관계경영, 중도경영, 경양경영, 수신경영, 문화경영, 도덕경영, 나눔경영, 한미음경영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경영이다.

손기원 대표는 지혜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손을 움직일 때는 잠재능력의 20~30%를, 머리를 움직이는 지식노동자 양성하면 40~50%의 잠재능력을, 마음까지 움직이면 100~120%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766-9455-6 www.onwisdom.com

● 지혜경영자가 자녀야 할 덕목



가 자녀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경영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 깨달음(진리)도 5명의 추천을 받아 11위에 올랐다.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지혜경영연구소는 생산성을 중시하던 경영이 지식경영으로 진화해 온 것처럼 지혜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쟁자에게 이겨야 한다는 경쟁전략과 성장전략으로 일관했던 기업들이 이제 수신과 공동체정신, 도덕과 진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동양사상에서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받는 추세라는 것이다.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는 "서양의 기업 중에서 이미 명상경영을 도입하거나 불교사상 등에서 새로운 경영원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지혜의 시대에 발맞춘 변화"라며 "경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치관과 생활양식, 생존의 법칙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지혜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부다의 경제학 (10)

‘개처럼 벌자’ 주의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는 그 의미를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듣기에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개처럼 벌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데 이 말이 악용되고 있는 듯해서 씁쓸하다.

물론 개처럼 벌다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만 쓰인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랴. 다만 개처럼 벌다는 것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태도를 말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떻게 돈을 벌더라도, 사회에서 말

든가?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상처주고 힘들게 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얼마의 자신 행위(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개처럼 돈 버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말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만해 왔는지. 우리 모두는 개처럼 돈을 벌려는 많은 사람들과 매일 부딪치며 살아 가고 있다. ‘개처럼 벌다’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표상이다.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 ‘개처럼 벌자 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정승처럼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과정이 어떻게든 결과만 중시하는 현실 이웃에 상처주지는 않았나 생각해야 정승처럼 쓰겠다는 마음, 善業 짓는 것

하는 소위 바람직한 곳에 돈을 쓴다면, 그 돈을 버는 과정의 모든 비윤리적 행동을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장하다고 박수까지 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들은 돈을 버는 과정에 잘못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좋은 목적으로 쓰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정승처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번 돈의 양에 만족하고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돈을 벌고 나서부터 돈을 쓰게 할까?

참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벌만큼 벌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벌만큼 벌었다고 해도 정승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소주 한잔을 마시기 위해 만원을 쓰기는 쉬워도, 불우이웃 돕기에 만원 내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

는 결코 돈을 버는 과정이 개처럼 될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 하는 사람은 기약 없는 내일의 사랑을 위해 오늘 이웃과 사회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개처럼 번 사람은 개처럼 쓸 수밖에 없고 정승처럼 번 사람만이 정승처럼 쓸 수 있다.

개처럼 벌더라도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하는 사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개처럼 번 사람은 결코 정승처럼 쓸 수 없다. 정승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개처럼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자 그 일의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설법하셨다. 우리는 뜻으로 마음 짓는다. 정승처럼 쓰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굳건히 있는 한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과정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비록 많이 못 벌어서 이웃에게 해줄 것이 정작 없더라도 우리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선업(善業)을 짓는 것이다. 정승처럼 일해서 정승처럼 쓰자.

■ 구경원(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음반 '동다송'

차의 대가 초의선사가 쓴 시집 <동다송>을 음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불교와 함께 시작된 차의 역사를 담은 음반 '동다송'은 해금, 대금, 거문고, 장고 등 전통 악기와 어코스티크타, 일렉트릭타, 신디사 이저 등 서양악기가 화음을 이룬 경음악 CD입니다. 음반회사 '유라시아의 아침'이 제작한 '동다송'은 차맛을 토크어줄 것입니다. 음반의 자켓은 무송 김장건 화백의 작품.

가격: 12,000원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역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덤을 밝게 비추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은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이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월영이 완하는 명문대학과, 사립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폐허가만 하던 재단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위협의 고인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극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이다.

불화의 명장인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본판 화지에 2도 완화와 배틀린 화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출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풍유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승사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신 목욕재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협한세상덕처울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1분앞도 모르는 협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밑고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집귀를 물리치고, 다쳐울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체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협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넣으면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메홈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서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여성용장지갑 (적색)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장지갑 (검정)

몸에 지나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 이뤄!

옴마니 반메홈, 육자대명왕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떨치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배방으로 옴마니반메홈 육자대명왕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인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학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홈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분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들려주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홈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

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홈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의도따라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배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할분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별 특별 축원 불공을 해드립니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